

## 東醫寶鑑에 수록된 梔子豉湯 加味方 分析

제갈경환<sup>1,2</sup>, 김영우<sup>1,2</sup>, 변성희<sup>2</sup>

<sup>1</sup>방제과학글로벌 연구센터, <sup>2</sup>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방제학교실

### ABSTRACT

## Analysis of herbal formulation about a series of *Chijasi-tang* in Dongeuibogam

Kyung-Hwan Jegal<sup>1,2</sup>, Young-Woo Kim<sup>1,2</sup>, Sung-Hui Byun<sup>2</sup>

<sup>1</sup>MRC-GHF, <sup>2</sup>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In this study, we selected some herbal formulation about a series of *Chijasi-tang* in Dongeuibogam by using web-based open program: Prescription Lineage Graph (<http://164.125.206.43/PrescriptionLineageGraph.aspx>). A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changes of efficacy, major target symptoms of each herbal formulation according to compositional variation of each herbal formulation. *Chijasi-tang*, first appeared in Sanghanlun, consists of Capejasmine and Fermented soybean, and it is mainly used to treat insomnia due to vexation, heartburn and yellow greasy tongue fur. Capejasmine can clear away irritable feverish sensation in chest by flowing downward the heat, and Fermented soybean can disperse stagnated heat throughout the chest by expelling stagnated heat from the exterior

In the case of the heat stagnation caused by relapsing of disease due to overstain, *Chisijisil-tang*

- 
- 교신저자 : 변성희
  - 대구시 수성구 상동 165번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Tel : 053-770-2244 Fax : 053-768-6340 E-mail : shbyun@dhu.ac.kr
  - 접수 : 2012/ 11/ 17 수정 : 2012/ 12/ 03 채택 : 2012/ 12/ 06

can be used. And if symptom appear more on the upper or exterior than a case of *Chisijisil-tang*, *Seosisi-tang* could be more suitable, if half exterior and half interior, *Omae-tang* could be for it. In addition, if symptom caused by relapsing due to improper diet, *Chisijihwang-tang* could be proper formulation. In the case of the heat stagnation body inside and jaundice, if it is caused by alcohol, *Chijadaehwang-tang* could be used for the purpose of urgent purgation, *Galchul-tang* would be suitable for helping the function of the spleen and the stomach and for treatment of damp-heat of the spleen and the stomach. And if it is caused by pandemic infection, *Jangdal-hwan* would be good formulation for it. *Samhwangseokgo-tang* and *Yangdokchija-tang* could be appropriate formulation for the raging of noxious heat and pathogenic fire caused by febrile disease with toxic yang. *Daehwangeum-ja* is for severe constipation due to heat-dryness with stagnated fever, *Haebaek-tang* is appropriate for severe diarrhea due to heat type change of Soeum.

According to the result of our investigation, although there are various target causes and symptoms of each herbal formulations, whatever pathogenetic cause is, the stagnated heat in interior side is the basis of symptoms. Therefore, the purpose of including *Chijasi-tang* in composition of each herbal formulation is treatment of the stagnated heat. For such reason, on the fundamental or ancillary basis of *Chijasi-tang* plus some herbs for each therapeutic purpose.

**Key word** : *Chijasi-tang*, Dongeuibogam, Analysis of the formula, Stagnated heat, Prescription Lineage Graph

## 1. 緒 論

梔子豉湯은 傷寒論에 수록된 方劑로 梔子 十四個(擘), 香豉 四合(綿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 4升到 梔子를 넣고 달여 2升半으로 줄인 다음, 香豉를 넣고 다시 달여 1升半으로 줄여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2번에 나누어 복용하라고 하였다<sup>1)</sup>.

傷寒論 76, 77, 78, 81, 221, 228, 375條에 보이며, 傷寒에 汗吐下를 시킨 다음에 火邪가 鬱滯되어 풀리지 않아 熱이 胸膈을 어지럽히는 경우(76, 77,

78조)나 陽明病에 攻下시킨 뒤에도 熱이 다 없어지지 않고 胸膈을 어지럽히는 경우(221, 228, 375조)에 쓸 수 있는 것으로<sup>2)</sup>, 傷寒에 餘熱이 未盡하고, 裏虛한데, 熱邪가 胸膈에 留擾된 증상 즉, 虛煩不得眠, 心中懊憹, 舌苔黃膩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方劑이다<sup>3)</sup>.

梔子豉湯에 관한 연구로는 梔子豉湯과 梔子豉湯加竹茹의 항스트레스효과에 관한 실험연구<sup>4)</sup>, 서지학적 연구로 傷寒論의 梔子豉湯 類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傷寒論 처방 이후의 梔子

豉湯 系列의 後世方에 관한 연구가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東醫寶鑑에 수록된 梔子豉湯의 加味方을 선별하여, 각 처방 구성약물의 加減에 따른 의미를 비교분석하고 주치증상 및 효능을 고찰하였다.

## II. 研究方法

### 1. 치자시탕 가미방의 선별

동의보감 처방분석시스템<sup>5)</sup>을 이용하여 梔子豉湯의 加味方들을 선별하였다. 검색 시 梔子, 豆豉(香豉)를 검색어로 하였으며, 이 경우 梔子, 豆豉

를 포함한 방제는 모두 검색결과에 포함된다. 각 구성약물의 용량은 豆豉만 하더라도 각 처방마다 勺, 粒, 錢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수치의 경우에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梔子豉湯, 梔子枳實湯, 鼠屎豉湯, 烏梅湯, 梔子枳黃湯, 梔子大黃湯, 葛朮湯, 三黃石膏湯, 瘴疽丸, 陽毒梔子湯, 大黃飮子, 薤白湯이 선별되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치자시탕 및 가미방의 약물구성

Table 1.

	梔子豉湯	枳實	枳殼	大黃	石膏	烏梅	升麻	柴胡	黃芩	杏仁	甘草	生薑	
梔子豉湯													
梔子枳實湯		○											
鼠屎豉湯			○										鼠矢, 葱白
烏梅湯						○		○	○		○	○	
梔子枳黃湯			○	○				○					
梔子大黃湯		○		○									
葛朮湯		○									○		葛根, 蒼朮
三黃石膏湯					○				○			○	麻黃, 黃連, 黃柏, 細茶
瘴疽丸				○						○			茵陳, 芒硝, 常山, 鼈甲, 巴豆霜
陽毒梔子湯					○		○	○	○	○	○	○	赤芍藥, 知母, 大青
大黃飮子			○	○		○	○		○	○	○	○	生地黃, 人參
薤白湯													薤白

## III. 本 論

### 1. 梔子豉湯

梔子豉湯은 雜病篇, 寒, 傷寒煩躁에 기록되어 있으며, 구성약물은 梔子七箇, 豉半合으로 傷寒汗下後의 虛煩不得眠, 心中懊惱를 치료한다<sup>6)</sup>. 東醫寶鑑에서는 煩躁란 懊惱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며, 懊惱는 답답하여 편치 않은 모습이라 하였다.

또한 煩躁를 煩과 躁를 나누어, 煩은 氣로 인한 것으로 火가 肺로 들어가 氣分의 熱로 인해 皮毛에 熱이 쌓여 답답하며, 心熱로 가슴속이 괴로워 吐하려는 것이라 하였고, 躁는 血로 인한 것으로 火가 腎으로 들어가 腎熱로 인해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일어났다 누웠다하며 불안해 하는 것이라 하였다<sup>6)</sup>.

방 중의 梔子は 苦寒한 性味로 서서히 下行하

여 淸熱하며 心·肺·三焦經의 火를 淸泄하고, 氣分에 들어가 瀉火除煩하여 熱病의 熱蘊胸膈에 의한 心煩懊憹를 치료한다<sup>7)</sup>. 豆豉는 辛苦 甘으로 疏散 宣透의 성질이 있어 表邪를 宣透하고 鬱熱을 宣散하며 解表하면서 陰을 상하지 않게 한다<sup>7)</sup>. 이 둘을 함께 쓰면 梔子是 熱을 下行시킴으로써 胸膈의 煩熱을 淸泄하고 豆豉는 外部로 熱을 透發시켜 胸膈間의 鬱熱을 宣解시키므로 상보작용을 일으켜 宣透鬱熱, 降火除煩하는 효과를 가진다<sup>8)</sup>.

또한 梔子豉湯에 胸滿少氣가 있으면 甘草를 加하고(梔子甘草湯), 胸滿이 있고 구역질이 나면 生薑을 加하라고 하였다(梔子生薑湯)<sup>6)</sup>. 胸滿은 胸中の 鬱熱로 인한 것이므로 梔子和 豆豉로 主治하고 少氣는 熱이 氣를 傷하게 하여 氣가 促急해진 것이니<sup>2)</sup> 甘草의 甘味로써 緩하게 하는 것이며, 嘔는 鬱熱이 脾胃를 침범하여 氣가 거슬러 오는 것이므로<sup>2)</sup> 生薑의 辛味로써 降逆止嘔하게 하는 것이다.

즉 梔子豉湯은 梔子和 豆豉의 배합으로 淸宣鬱熱, 除煩透邪하는 효능으로 外感熱病의 胸中鬱熱로 인한 胸中熱高不快, 不眠 등을 除煩解鬱하여 치료한다.

## 2. 梔子枳實湯

梔子枳實湯은 雜病篇, 寒, 勞復食復證에 기록되어 있으며 勞復發熱을 치료한다. 구성약물은 梔子, 枳實各二錢, 香豉五錢로 枳實梔子豉湯이라고도 한다<sup>6)</sup>. 勞復의 勞란 일한다는 뜻이고, 復은 병이 재발한 것을 뜻한다. 傷寒에서 갓 나은 후 津液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血氣가 여전히 虛한데 梳洗, 言動太早하거나 思慮太過하면 勞復이 생긴다. 일을 많이 하면 熱이 생기고, 이 熱이 虛한 틈을 타고 經絡으로 들어가면 病이 재발하는 것을 면치 못하는데 이것을 勞復이라 한다<sup>6)</sup>.

張仲景은 勞復이나 食復에도 和解, 汗, 下의 세 가지 治法을 사용하였다. 和解法은 小柴胡湯을 위주로 하고, 發汗시키는 것은 枳實梔子豉湯을 위주로 하여 그 치밀함을 보였다<sup>2)</sup>. 본 방은 梔子豉湯

에서 豆豉를 늘이고 枳實을 넣어서 만든 것이다. 勞復으로 인해 熱이 다시 나서, 胸膈으로 떠오른 것이니, 梔子로 胸膈에 올चे된 熱을 내려주고, 枳實을 좀 넣어 약간 찬기운으로 기운을 내려주어, 熱이 기운을 따라 내려가게 한다. 본방은 豆豉를 많이 넣어 梔子和 배합하므로 邪熱을 뚫어서 흩어 주는 힘이 강해진다. 宣發하는 힘이 부족할까봐 이불을 덮고 약간 땀이 나도록 한다. 본방은 내부로는 熱을 내리고 외부로는 透發함으로써 勞復으로 생긴 煩熱을 푸는데 쓴다<sup>2)</sup>.

즉 梔子枳實湯은 梔子豉湯 加枳實의 의미로 梔子豉湯으로 胸中을 煩熱을 풀고(淸熱除煩), 枳實로 寬中行氣함으로써 勞復으로 인해 안으로부터 생긴 熱을 치료한다.

## 3. 鼠屎豉湯

鼠屎豉湯은 雜病篇, 寒, 勞復食復證에 기록되어 있으며, 梔子枳實湯과 같이 勞復으로 熱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梔子七箇 雄鼠屎七枚 枳殼一枚炒, 葱白二寸 香豉三十粒로 구성되어 있다<sup>6)</sup>.

鼠屎豉湯은 梔子枳實湯의 枳實을 枳殼으로 바꾸고 葱白과 鼠矢를 더한 방제로 볼 수 있다. 枳實, 枳殼은 氣味와 효능이 같으니 옛날에는 구별하지 않고 썼으나, 魏晉시대 이래로 枳實, 枳殼을 구별해서 쓰기 시작하였다. 潔古 張元素, 東垣 李杲에 와서는 枳殼은 상부를, 枳實은 하부를 치료한다는 설명을 하였다. 대개 효능은 다 기운이 잘 통하게 하는 것으로, 枳實의 효능은 맹렬하고 枳殼은 緩和하다. 破積導滯, 通利小便에는 枳實, 理氣寬中, 消痞脹滿에는 枳殼을 사용한다. 그래서 枳實은 腸胃를 잘 통하게 하고 枳殼은 胸膈을 잘 통하게 한다<sup>2,7)</sup>. 방 중의 豆豉와 葱白은 葱豉湯으로 外感初期에 發熱惡寒, 頭痛鼻塞 등을 치료한다<sup>9)</sup>. 葱白의 辛味는 發散하고 肌肉을 풀어주며 上下의 陽氣를 서로 통하게 하니, 외부에서 들어와 鬱滯된 증상들은 다 풀어줄 수 있다<sup>7)</sup>. 따라서 葱白과 豆豉의 배합으로 表分에 남아있는 邪氣를 宣透하

고鬱滯된 것을 宣發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鼠矢는 甘, 微寒하며 傷寒勞復發熱, 男子陰易腹痛을 치료한다 하였다<sup>10)</sup>.

즉, 鼠屎豉湯은 梔子枳實湯과 같이 勞復으로 생긴 熱을 치료하는데 쓸 수 있으나 枳實을 빼고 枳殼을 더함으로써 좀 더 上部, 胸中の鬱滯를 풀고자 하였고, 葱白을 더함으로써 發散시키고 上下의 陽氣가 잘 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梔子枳實湯보다는 좀 더 上部와 表分을 치료하며, 陰陽易으로 인한 發熱에도 응용할 수 있다.

#### 4. 烏梅湯

烏梅湯은 雜病篇, 寒, 傷寒差後雜證에 기록되어 있으며 傷寒이 나은 후의 虛煩不得眠, 心中懊憹를 치료한다. 구성약물은 柴胡二錢 梔子炒 黃芩 甘草 灸各一錢 烏梅肉二箇 薑三片 豉五十粒이다<sup>6)</sup>.

방 중의 梔子, 豆豉는 梔子豉湯으로서 胸中の煩熱을 풀며, 여기에 甘草, 生薑을 가한 것은 각각 梔子生薑豉湯, 梔子甘草豉湯으로 胸滿을 풀 수 있다. 柴胡와 黃芩의 조합으로는 半表半裏의 熱을 和解시킬 수 있다. 柴胡는 苦涼한 약물로 氣가 輕清하며 升散을 主하는 성질이 있어 少陽을 疏散하는 데 뛰어나 半表之邪를 外達하고 氣分의 鬱結을 없애며 解表하는 동시에 和裏하는 장점이 있고, 黃芩은 苦寒하며 肝膽氣分의 熱을 清하므로써 半裏之邪를 內徹한다<sup>8)</sup>. 神農本草經에서는 매실은 맛이 시고 기운은 平하다. 주로 기운을 내려주고 熱로 가슴이 답답하고 그득한 것을 없애주고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하였다<sup>2)</sup>.

즉 烏梅湯은 梔子豉湯 加柴胡, 黃芩, 烏梅, 甘草, 生薑의 의미로 胸中の鬱熱을 풀고 梔子豉湯 보다는 더 半表半裏에 치우쳐 있는 熱을 和解시켜 傷寒 差後의 虛煩不得眠, 心中懊憹를 치료한다.

#### 5. 梔子枳黃湯

梔子枳黃湯은 雜病篇, 寒, 勞復食復證에 食復發

熱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성약물은 梔子 枳殼 柴胡各一錢 香豉五錢 大黃三錢 이다<sup>6)</sup>. 傷寒論에서는 '大病 差後, 勞復者 枳實梔子豉湯主之. 若有宿食者, 加大黃如博棋子大 五六枚.'라 하였으며 醫宗金鑑에서는 '傷寒이 나은 후의 再發熱은 勞復, 食復의 구별이 있으며, 반드시 和解시킬 것인지 下할 것인지 나누어야 한다. 脈이 浮하고 邪氣가 表에 있으면 마땅히 發汗해야 하며 枳實梔子豉湯으로 汗을 낸다. 脈이 沈하고 邪氣가 裏에 있으면 마땅히 攻下해야 하며 枳實梔子豉加大黃湯으로 下한다. 만약 半表半裏에 있다면 마땅히 和解시켜야 하며 小柴胡湯을 쓴다.'고 하였다. 또한 東醫寶鑑에서는 食復은 傷寒에서 갓 나은 후 胃氣가 아직 약한 상태에서 함부로 음식을 먹어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어 전처럼 熱이 나는 것이다. 만약 補藥을 쓰면 胃熱이 도리어 많아지므로 치료는 반드시 清熱, 消食해야 한다고 하였다<sup>6)</sup>.

위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방 중의 梔子, 豆豉, 枳殼은 梔子枳實湯의 枳實을 枳殼으로 바꾼 것으로 梔子, 豆豉로 胸中の鬱熱을 清泄하고 枳殼으로 胸膈을 잘 통하게 한다. 또한 大黃을 더하여 宿食을 제거함으로써 食復으로 인한 再發熱을 치료할 수 있으며, 여기에 柴胡를 더하여 半表半裏에 있는 熱의 和解 또한 고려한 처방으로 분석할 수 있다.

#### 6. 梔子大黃湯

梔子大黃湯은 雜病篇, 黃疸, 黃疸治法에 酒疸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성약물은 梔子 大黃各二錢 枳實一錢 豉一合이다. 東醫寶鑑에서는 酒疸에 대해 술로 인해 黃疸이 되면 반드시 小便不利, 心中熱, 足下熱의 증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心中懊憹而熱, 不能食, 時欲吐를 酒疸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며, 酒疸이 되면 몸이 누르고 心中에 結熱이 생겨 煩하게 된다고도 하였다. 治法에 있어 모든 黃疸에 있어 小便이 不利한 것은 裏實證이니 利小便하거나 下해야 한다고 하였다<sup>6)</sup>.

방 중의 梔子, 豆豉는 梔子豉湯으로 胸中の 火를 清泄하여 心中的 結熱로 인한 煩熱을 解할 수가 있으며, 大黃과 枳實은 小承氣湯의 구성 약재 중 일부로 泄熱通便하는 효능으로 腸胃의 濕熱積滯를 치료할 수가 있다. 또한 梔子是 三焦의 濕熱을 清泄하고 大黃은 또한 濕熱을 清火하는 功이 있다. 이들이 서로 配伍되면 清熱利濕의 작용이 강화되고 利膽退黃하는 功을 가지게 된다<sup>8)</sup>.

즉, 梔子大黃湯은 梔子豉湯 合小承氣湯 去厚朴의 의미로 清熱除煩, 利濕退黃, 泄熱通便하는 효능으로 술로 인한 黃疸을 치료한다.

## 7. 葛朮湯

葛朮湯도 역시 雜病篇, 黃疸, 黃疸治法에 酒疸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구성약물은 葛根 蒼朮各二錢 枳實 梔子 甘草各一錢 豉一合이다<sup>6)</sup>.

방 중의 葛根은 性味が 辛甘하고 平하고, 가볍게 날려서 陽氣를 올려 發散시키며, 足陽明胃經으로 들어간다. 胃氣를 고동케 하여 上行시키고, 津液이 생기도록 하여 갈증을 멎게 하며, 겸하여 脾經으로 들어가 腠理를 열어주어 땀을 내고, 肌肉을 풀어주어 熱을 물리친다<sup>10)</sup>. 蒼朮은 芳香, 燥濕, 健脾하는 효능이 있어 濕濁化鬱이 된 것을 치료하는 功이 크므로<sup>7)</sup> 술로 인해 생긴 脾胃의 濕熱을 치료할 수 있다. 枳實, 梔子, 豆豉는 梔子枳實湯으로 清熱除煩하고 寬中行氣하는 효능으로 술로 인해 생긴 濕熱이 熏蒸되어 생긴 熱을 치료할 수 있다.

즉, 葛朮湯은 梔子枳實湯 加蒼朮, 葛根, 甘草의 의미로 구성되어 酒疸을 치료한다.

## 8. 三黃石膏湯

三黃石膏湯은 雜病篇, 寒, 傷寒陽毒에 기록되어 있으며 傷寒陽毒으로 發斑, 身黃, 眼赤, 狂叫欲走, 譫語, 六脈洪大한 증후에 쓴다. 구성약물은 石膏三

錢 黃芩 黃連 黃柏 山梔仁各一錢半 麻黃一錢 香豉 半合 薑三片 細茶一撮 으로 구성되며 水煎服한다. 傷寒陽毒이란 傷寒三陽病이 깊어져 생기는데 혹汗, 下法을 쓸 때를 놓치거나 본디 陽證인데 熱藥을 잘못 투여하여 熱毒이 깊어 들어가 發狂, 面赤 眼紅, 身發斑黃 하거나 下痢黃赤하고 六脈이 洪大한 것을 陽毒發斑이라고 하며 이 때 三黃石膏湯을 적용할 수가 있다. 또한 傷寒에 두 눈이 적색, 황적색을 띠면 陽毒인데, 六脈이 洪大, 有力하고 입이 마르고 갈증이 있다. 가벼운 경우에 三黃石膏湯을 쓸 수 있다<sup>6)</sup>.

방 중의 山梔仁은 梔子보다 心熱을 清하는 효능이 더 우수하며<sup>7)</sup> 豆豉와의 배합으로 梔子豉湯의 清宣鬱熱, 除煩透邪하는 효능을 나타낸다. 또한 黃芩, 黃連, 黃柏, 梔子는 黃連解毒湯으로 三焦에 火毒熱盛하여 나타나는 高熱, 神昏譫語, 吐血, 發斑하는 증후를 치료한다<sup>9)</sup>. 石膏는 밖으로 肌表와 熱을 透發하고 안으로 肺胃의 熱을 清하며, 退熱生津하여 除煩止渴하므로 外感熱病의 氣分實熱에 의한 高熱汗出, 煩渴引飲 脈象洪大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또한 清熱涼血 약물과 함께 사용하여 高熱, 神昏譫語, 發斑發疹에도 유효한 효능을 지닌다<sup>7)</sup>. 여기에 麻黃의 辛涼解表하는 효능으로 豆豉와 함께 表邪를 宣透함으로써 表裏를 모두 解하고자 하였다. 茶의 性味는 苦, 微甘, 涼으로 上焦의 鬱熱을 清하고 除火除煩하며 祛風解暑, 靑上頭目, 生津止渴 등의 효능을 지닌다<sup>7)</sup>.

즉, 三黃石膏湯은 黃連解毒湯 合梔子豉湯 加石膏, 麻黃, 生薑, 細茶의 의미로 傷寒陽毒으로 인해 나타나는 發斑, 身黃, 眼赤, 狂叫欲走, 譫語, 六脈洪大한 증후를 치료한다.

## 9. 瘴疽丸

瘴疽丸은 雜病篇, 黃疸, 疫癘發黃 및 雜病篇, 疫癘, 諸虐證治-疫癘, 瘴瘡과 雜病篇, 瘟疫, 瘟疫治法에 기록되어 있으며, 天行病急黃, 瘴瘡發黃을 치료한다. 구성약물은 茵陳 梔子 大黃 芒硝各一兩 杏

仁六錢 常山 鰲甲 巴豆霜各四錢 豆豉二錢이며 茵陳丸이라고도 하며 得效方의 梔子元과도 같다<sup>6)</sup>.

방 중 茵陳, 梔子, 大黃은 茵陳蒿湯으로 清熱利濕, 退黃하는 효능이 있어 濕熱로 인한 黃疸을 치료하는 要藥이 된다<sup>9)</sup>. 黃疸의 치료는 濕熱을 大小便을 따라 나가게 하는데 있으므로 芒硝, 巴豆霜, 杏仁을 넣어 大黃의 瀉下力을 보좌하였다. 또한 疫癘, 疹瘡, 瘟疫으로 인한 黃疸임을 고려하여 常山과 鰲甲의 截瘡과 退熱의 효능을 이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瘴疽丸은 茵陳蒿湯 合 梔子豉湯 加 芒硝, 杏仁, 巴豆霜, 常山, 鰲甲의 의미로 유행성 질병으로 인한 黃疸을 치료한다.

## 10. 陽毒梔子湯

陽毒梔子湯은 雜病篇, 寒, 傷寒陽毒 및 傷寒發狂에 기록되어 있으며 陽毒을 치료한다. 구성약물은 石膏二錢 升麻 黃芩 杏仁 柴胡各一錢 梔子 赤芍藥 知母 大青各七分 甘草五分, 薑五片 豉百粒이다<sup>6)</sup>.

방 중의 石膏, 知母, 甘草는 白虎湯으로 清熱生津하는 효능이 있어 陽明氣分の 熱盛으로 壯熱面赤하고, 煩渴引飲하며, 汗出惡熱, 脈象洪大有力 或滑數한 증후를 치료한다<sup>9)</sup>. 梔子, 大青, 黃芩, 升麻, 杏仁은 梔子大青湯으로 임신부의 傷寒으로 인한 發斑變黑을 치료하며<sup>6)</sup>, 또한 梔子和 豆豉의 배합으로 胸中을 鬱熱을 解하고자 하였다. 黃芩, 赤芍, 甘草는 天行瘟疫, 頭痛壯熱을 치료하는 방제인 清熱解肌湯의<sup>6)</sup> 구성 약재 중 일부로 清熱解表, 解肌의 효능을 나타낸다. 즉, 陽毒梔子湯은 白虎湯 合 梔子大青湯 合 梔子豉湯 合 清熱解肌湯 去 葛根의 의미로 傷寒陽毒으로 인한 증후를 치료한다.

## 11. 大黃飲子

大黃飲子は 內景篇, 大便, 大便不通에 기록되어 있으며, 熱燥로 大便不通이 된 것을 치료한다. 구

성약물은 生地黃二錢 大黃煨 杏仁 梔子 升麻 枳殼各一錢 人蔘 黃芩 甘草各五分 薑五片 豉二十一粒 烏梅一箇이다<sup>6)</sup>.

방 중의 生地黃, 大黃, 黃芩은 三黃瀉心湯에서 黃連을 뺀 것으로 清熱瀉火의 효능을 가지며, 梔子, 黃芩, 甘草, 生薑, 豆豉, 烏梅는 烏梅湯에서 柴胡를 제외한 것으로 胸中의 鬱熱을 宣散하여 熱燥를 解하고자 하였다. 大黃, 杏仁은 倒換散으로 大便不通을 치료한다. 古方에서 大便을 통하게 할 때는 모두 氣를 내리는 약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肺氣가 내려가지 않으면 大便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sup>6)</sup>. 방 중의 杏仁과 枳殼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 할 수 있다. 枳殼, 升麻는 濟川煎의 구성 약재로 枳殼은 寬腸下氣하는데 升麻를 약간 가하면 清陽을 상승케 할 수 있다. 이는 濁氣를 하강 시키고자 할 때에는 먼저 清陽을 上升케 하여 升清降濁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妙를 취한 것이다. 따라서 補하여도 滯하지 않게 되어 모두가 佐使藥이 되는 것이다<sup>7)</sup>. 또한 여기에 人蔘을 가하여 脾氣를 補하여 脾升清을 도움으로써 中焦의 안정을 돕도록 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大黃飲子は 烏梅湯 去 柴胡 合 三黃瀉心湯 去 黃連 加 杏仁, 枳殼, 升麻, 人蔘의 의미로 熱燥로 인한 大便不通을 치료한다.

## 12. 薤白湯

薤白湯은 雜病篇, 寒, 少陰形證用藥-少陰病自利와 雜病篇, 小兒, 痘後諸疾-痘後痢疾에 기록되어 있으며, 少陰病 熱利不止 및 傷寒下利如爛肉汁, 赤帶下, 伏氣腹痛과 痘後下利, 黃赤膿血를 치료한다. 구성약물은 豆豉半合 綿裹 薤白一握 梔子七枚이다<sup>6)</sup>. 少陰病 熱利不止는 少陰病이 熱化하여 생긴다. 少陰病熱化證에 心中煩, 不得臥가 나타나면 黃連阿膠湯으로 主治하고(303. 少陰病, 得之二三日以上, 心中煩, 不得臥, 黃連阿膠湯主之.) 腹痛 泄利下重이 있으면 四逆散에 薤白을 가하여 치료한다(318. 少陰病, 四逆, 其人 或咳, 或悸, 或小便不利, 或腹

中痛, 或泄利下重者, 四逆散主之. ...泄利下重者, 先以水五升, 煮薤白三升...<sup>1)</sup>.

薤白湯은 梔子豉湯 加薤白으로 구성되어 있어 熱이 胸膈을 擾亂하지만 黃連阿膠湯證처럼 아직 腎水는 虛하지 않은 상태에 梔子豉湯으로 胸中の 鬱熱을 宣散시키고 薤白으로써 下焦의 氣滯를 풀어줌으로써 泄利下重을 치료한다.

즉 薤白湯은 梔子豉湯 加薤白으로 少陰病의 熱化로 인해 胸中の 鬱熱이 심하고 熱利不止로 下重感이 있을 때 응용할 수 있다.

#### IV. 考 察

이상의 方劑를 살펴본 결과 각 方劑의 病因 및 病증은 傷寒, 勞復, 食復, 酒疸, 傷寒陽毒, 瘴氣, 癘氣, 熱燥, 少陰熱化로 다양하였으나 원인이 무엇이든 내부 鬱熱의 형성이 病증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方劑에 공통적으로 쓰인 梔子豉湯은 梔子和 豆豉로 구성되어, 방 중의 梔子는 熱을 下行시킴으로써 胸膈의 煩熱을 清泄하고 豆豉는 外部로 熱을 透發시켜 胸膈間의 鬱熱을 宣解시키므로 상보작용을 일으켜 宣透鬱熱, 降火除煩하는 효과를 가진다<sup>10)</sup>. 이로 보아 각 方劑는 病증의 바탕이 되는 내부의 鬱熱을 解하기 위한 목적으로 梔子豉湯을 근간 혹은 부수적으로 놓고, 각각의 病인, 증상과 치법에 맞는 약물을 이에 더하여 方劑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胸中鬱熱의 病증 바탕 위에 少氣가 있으면 甘草를, 嘔가 있으면 生薑을 가한 것이다.

梔子枳實湯, 鼠屎豉湯, 烏梅湯, 梔子枳黃湯은 傷寒이 나은 후 再發熱을 치료하기 위한 方劑로 梔子枳實湯은 梔子豉湯 加枳實로 梔子豉湯으로 胸中을 煩熱을 풀고(清熱除煩), 枳實로 寬中行氣함으로써 勞復으로 인해 안으로부터 생긴 熱을 치료하는데 쓰인다. 鼠屎豉湯은 梔子枳實湯과 같이 勞復으로 생긴 熱을 치료하는데 쓸 수 있으나 枳實을

빼고 枳殼을 더함으로써 좀 더 上部, 胸中の 鬱滯를 풀고자 하였고, 葱白을 더함으로써 發散시키고 上下의 陽氣가 잘 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梔子枳實湯보다는 좀 더 上部와 表分을 치료하며, 陰陽易으로 인한 發熱에도 응용할 수 있다. 烏梅湯은 梔子豉湯 加柴胡, 黃芩, 烏梅, 甘草, 生薑의 의미로 胸中の 鬱熱을 풀고 梔子豉湯 보다는 더 半表半裏에 치우쳐 있는 熱을 和解시켜 傷寒 差後의 虛煩不得眠, 心中懊憹를 치료하고자 하였다. 梔子枳黃湯 중의 梔子, 豆豉, 枳殼은 梔子枳實湯의 枳實을 枳殼으로 바꾼 것으로 梔子, 豆豉로 胸中の 鬱熱을 清泄하고 枳殼으로 胸膈을 잘 통하게 하였으며, 또한 大黃을 더해 宿食을 제거함으로써 食復으로 인한 再發熱을 치료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柴胡를 더하여 半表半裏에 있는 熱의 和解 또한 고려한 처방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傷寒 差後의 勞復, 食復으로 인하여 생긴 病증은 梔子豉湯으로 내부의 鬱熱을 잡고, 이에 枳實을 더하여(梔子枳實湯) 行氣를 고려하고, 病증이 이보다 좀 더 上部, 表分에 치우쳐 있거나, 陰陽易의 증상이 있으면 鼠屎豉湯, 半表半裏에 있으면 烏梅湯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病因이 宿食으로 인한 것이면 梔子枳黃湯을 쓸 수 있다.

梔子大黃湯과 葛朮湯. 이상의 두 方劑는 모두 酒疸을 치료하기 위한 方劑로 梔子大黃湯은 梔子豉湯 合小承氣湯 去厚朴의 의미로 구성되어 清熱除煩, 利濕退黃, 泄熱通便하는 효능으로, 葛朮湯은 梔子枳實湯 加蒼朮, 葛根, 甘草의 의미로 구성되어 清熱除煩하고 寬中行氣, 芳香燥濕健脾, 生津止渴하는 효능으로 酒疸을 치료한다. 病因은 모두 暑로 인한 것으로, 濕熱이 熏蒸되어 생긴 내부의 鬱熱을 梔子豉湯으로 解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脾胃의 濕熱을 급히 下法으로 내보내 고자 할 때에는 梔子大黃湯으로, 健脾燥濕에 중점을 둔다면 葛朮湯으로 치료할 수 있다.

瘴疽丸 역시 黃疸을 치료하는 方劑이나 그 원인이 瘴氣, 癘氣라는 것에 위의 두 方劑와 차이가



있다. 瘴疽丸은 茵陳蒿湯 合 梔子豉湯 加 芒硝, 杏仁, 巴豆霜, 常山, 鱉甲의 의미로써 茵陳蒿湯으로 黃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유행성 邪氣으로 인해 형성된 내부의 鬱熱을 解하는데 梔子豉湯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截瘧, 退熱의 효능이 있는 약물로써 方을 구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三黃石膏湯, 陽毒梔子湯은 모두 傷寒陽毒으로 인해 나타나는 병증에 사용하는 方劑이다. 陽毒梔子湯은 白虎湯 合 梔子大青湯 合 梔子豉湯 合 清熱解肌湯 去 葛根의 의미로, 三黃石膏湯은 黃連解毒湯 合 梔子豉湯 加 石膏, 麻黃, 生薑, 細茶의 의미로 구성되어, 傷寒陽毒으로 인해 나타나는 發斑, 身黃, 眼赤, 狂叫欲走, 譫語, 六脈洪大한 증후를 치료한다. 이로 보아 三黃石膏湯은 黃連解毒湯과 石膏가 중심이 되어 三焦의 熱毒壅盛의 치료에 중점을 두었으며, 陽毒梔子湯은 白虎湯이 중심이 되어 陽明經에 熱毒이 熾盛한 것을 解하는데 초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傷寒陽毒으로 인해 火毒이 熾盛하여 발생한 내부의 鬱熱을 해소하고자 梔子豉湯을 부가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大黃飮子和 薤白湯은 내부의 熱로 인해 대변에 문제가 생긴 것을 치료하는 方劑로, 大黃飮子는 烏梅湯 去 柴胡 合 三黃瀉心湯 去 黃連 加 杏仁, 枳殼, 升麻, 人蔘의 의미로 熱燥로 인한 大便不通을 치료하며, 薤白湯은 梔子豉湯 加 薤白으로 少陰病의 熱化로 인해 胸中の 鬱熱이 심하고 熱利不止로 下重感이 있을 때 응용할 수 있다.

## V. 結 論

이상과 같이 東醫寶鑑에 나타난 梔子豉湯과 그 加味方들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梔子和 豆豉가 같이 쓰인 方劑는 모두 내부의 鬱熱이 병증의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勞復으로 인한 것일 때는 梔子枳實湯, 병증이 이보다 좀 더 上部와

表분에 치우쳐 있을 때는 鼠屎豉湯, 半表半裏에 있다면 烏梅湯, 食復으로 인한 것이면 梔子枳黃湯을 응용할 수 있다. 또한 술로 인해 내부에 鬱熱이 있고 黃疸이 생겼을 때, 급히 下하고자 한다면 梔子大黃湯을, 脾胃기능을 돕고 脾胃의 濕熱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葛朮湯을 쓸 수 있으며, 유행성 邪氣로 인해 내부에 鬱熱이 熾盛하고 黃疸이 생겼을 때는 瘴疽丸을 응용할 수 있다. 傷寒陽毒으로 인한 熱毒火邪의 壅盛에는 三黃石膏湯과 陽毒梔子湯을, 내부의 鬱熱로 熱燥가 생겨 大便不通이 되었다면 大黃飮子를, 少陰熱化로 인해 泄瀉가 그치지 않는다면 薤白湯을 응용할 수 있다.

## 감사의 글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EST] (No.2012-0009405).

## 參考文獻

1. 문준전 등. 상한론 정해. 서울:경희대학교 출판국. 1998:188, 580, 607-9.
2. 陳柱杓. 상한론용어사전. 서울:법인문화사. 2006: 787-8, 793-4, 797-8, 896, 1462-5.
3. 한상윤, 김동희, 김성훈. 상한론 치자시탕류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한의학논문집. 1999;7(2):385-97.
4. 노석균. 梔子豉湯과 梔子豉湯加竹茹가 拘束스트레스 흰쥐에 미치는 影響.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대학원. 1995.
5. <http://164.125.206.43/PrescriptionLineageGraph.aspx>
6. 許浚. 東醫寶鑑. 경남:동의보감 출판사. 2006: 427-8, 729, 1066, 1083, 1089, 1091, 1097, 1108-9, 1115, 1465, 1469, 1486, 1506, 1508.

7. 黃度淵. 新增 方藥合編. 서울:영림사. 2007:164, 386, 509, 525, 538, 578, 637.
8. 陳維華, 徐國龍 등. 藥對論. 서울:일중사. 1996: 85, 211.
9.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수. 방제학. 서울:영림사. 1999:91. 180 491 169.
10. 汪昂. 增補 本草備要. 서울:高文社. 1084:26, 213.